

화순 봄꽃 축제 '야행', 새로운 매력 발산

봄밤 콘서트·야간 조명·공연 등 관람객들 '만족' 축제 후 10일까지 '경관 관람형' 무료개방 지속

봄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화순 봄꽃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봄꽃 야행'을 주제로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10일간 개최했다.

낮에는 네모필라, 텔파눔 등 30여종의 초화류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5개 테마 정원이 봄의 정취를 선사했고, 야간에는 화려한 경관 조명과 음악분수, 포토존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야행 콘텐츠를 선보이며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축제 기간 운영된 봄밤 콘서트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인기 가수들과 지역 가수들이 참여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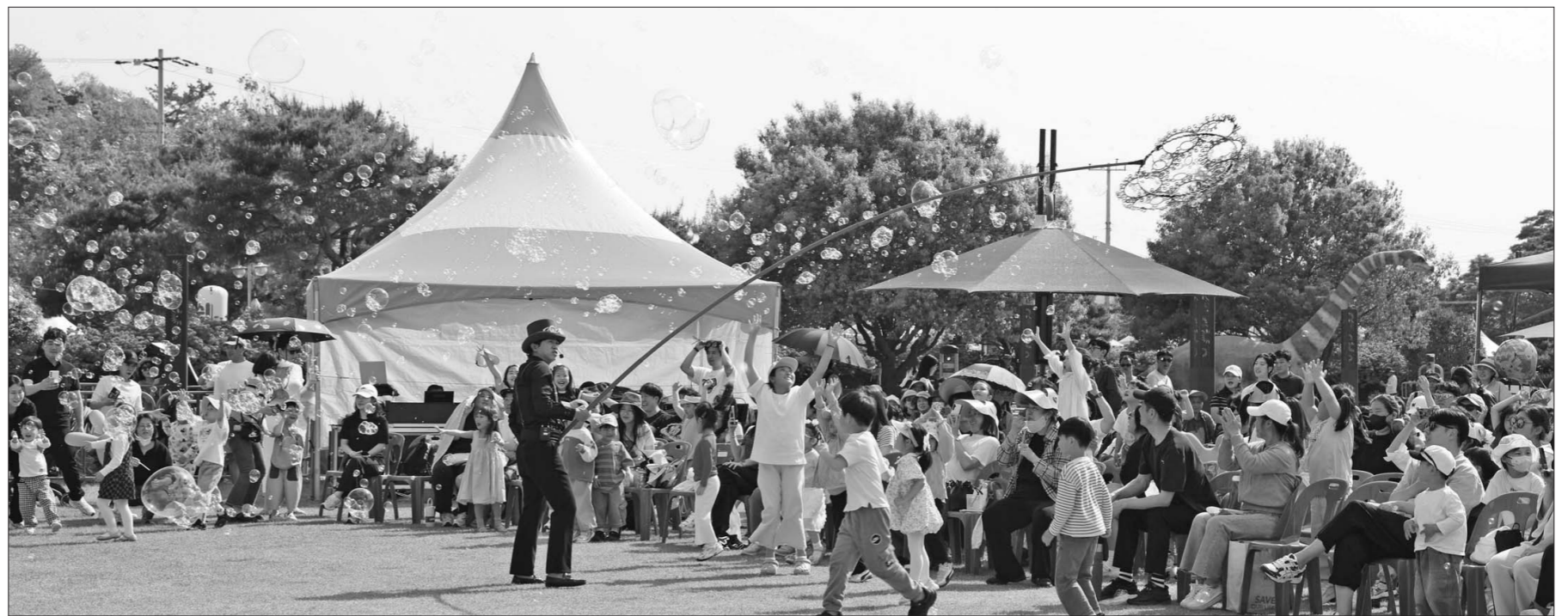
대와 봄꽃 캔들 만들기, 봄꽃 아로마 테라피 등 체험 프로그램, 베패가 포차와 개미 썰터 등이 조화를 이루며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완성됐다.

먹거리와 지역 상생도 눈길을 끌었다.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푸드트럭, 시그니처 푸드존 등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바가지요금 없는 합리적인 가격 운영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다화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봄꽃 야행' 콘텐츠는 축제 종료 이후에도 계속 운영. 야간 조명이 축제장 곳곳을 밝히며 아름다운 봄밤 풍경을 연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군은 축제 종료 이후에도 오는 10



2026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로 봄비는 모습.

사진제공=화순군청

일까지 축제장을 '경관 관람형'으로 무료 개방한다. 이 기간에는 공연·전시·판매 등 주요 프로그램은 종료되지만, 일부 먹거리

운영과 함께 봄꽃 경관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축제는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나주, 남평·영산포 파크골프장 개장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재개

나주시는 남평과 영산포 일원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고,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을 재개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에 나섰다.

양산포 파크골프장은 2024년 6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됐으며 이후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봄철 잔디 생육 보호기간을 거쳤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를 나눠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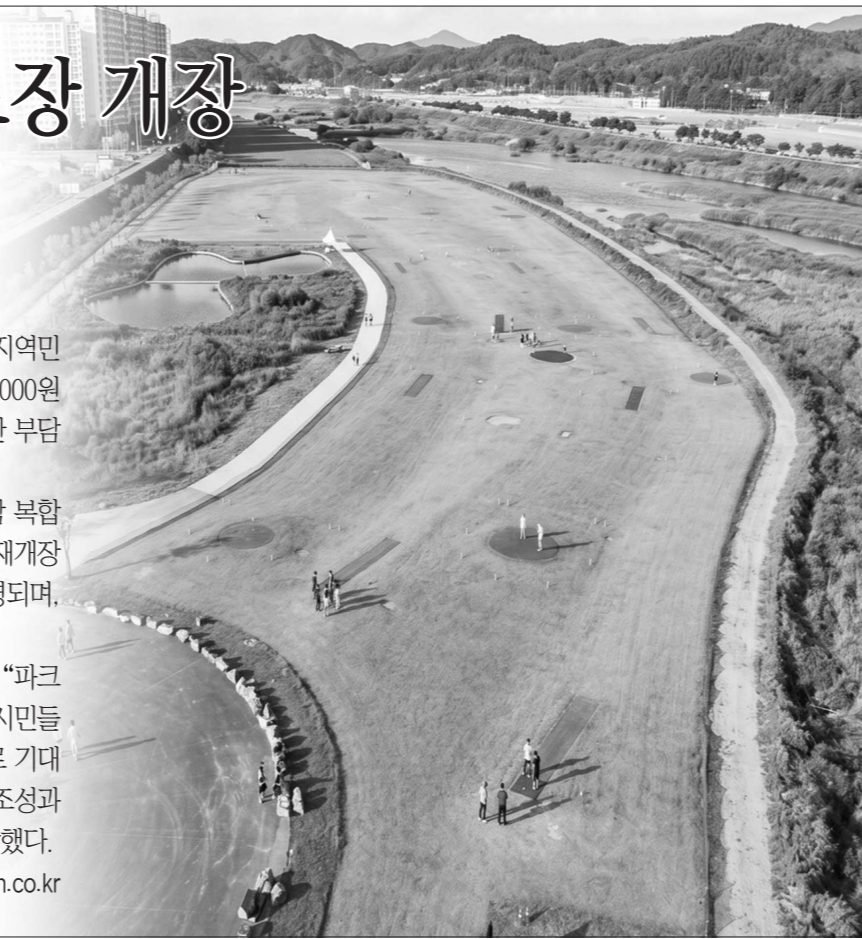
이용은 나주시민은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타 지역민 이용객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나주시민 1000원, 타 지역민 7000원이다. 이중 타 지역민 이용료 5000원이 지역화폐로 환급, 사실상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에 나선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25m 7레인)도 재개장했다. 다만 정식 개장으로 유료로 운영되며, 주차장 무료 이용도 종료됐다.

조정임 나주시 관광문화복지국장은 "파크골프장 개장과 수영장 재개장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중동시대 장기화' 장성, 농가 36억 지원

조사료 수급 안정대책...벼 농자재 수급불안 대응도

장성군은 중동시대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먼저 24억9900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축산농가 대상 '조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사업 규모를 지난 해보다 5% 늘린 것으로, 지역 내 17개 경영체와 조사료 재배지 1351ha를 지원한다.

여름철 조사료 재배농가에는 전락작물 직불금을 50만원 인상, ha당 550만원씩 지급한다.

제도-운송비 지원도 9%가량 확대하고,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 지원에 견고한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품질검사와 재배면적 관리, 종자구입비 지원도 병행해 사료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조사료 수급 안정성은 장성군과 축협, 경영체가 참여하는 '조사료 수급 협의체'를 통해 확보한다. 지역 내 축산농가에 조

사료를 우선 공급하고, 외부 유출을 최소화한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벼 농자재는 사업비 11억4000만원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5월까지 맞춤형 비료 6만513포, 상토 10만4131포, 육묘상자처리제 5만744포, 액상규산 6459포를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자재 수급 상황실'을 운영해 농자재 가격과 재고, 공급 동향을 상시 확인하고 있다. 공급 일정, 물량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농가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

스튜디오 순천, 콘텐츠 인재양성 결심

애니메이션 제작·연출·캐릭터 개발 등 수료생 30% 작가 데뷔·취업·창업 활동

순천시는 최근 정원위케이션센터에서 '제1기 스튜디오 순천(Studio Suncheon)', 웹툰·애니메이션스쿨' 수료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54명을 배출했다.

'스튜디오 순천'은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엔지니어 케나즈와 순천 입주 콘텐츠 기업들이 교육 설계부터 강의, 멘토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현장 중심 아카데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순천의 핵심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교육이 지역기업에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생의 절반가량이 서울, 광주, 대구, 제주 등 타 지역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수료생 중 약 30%는 교육 수료와 동시에 취업, 창업, 인스타툰 작가로 데뷔했다.

이들은 케나즈, 그래픽스, 스튜디오 터엔티, 스튜디오에니멀, 일리몰리 스튜디오



순천시는 최근 정원위케이션센터에서 '제1기 스튜디오 순천(Studio Suncheon)', 웹툰·애니메이션스쿨' 수료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54명을 배출했다. 사진은 '제1기 스튜디오순천 웹툰·애니메이션스쿨' 수료식 모습.

오 등에 채용돼 애니메이션 제작, 연출, 디자인, 캐릭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에서 아카데미를 수강하기 위해 순천으로 내려온 한 수료생은 "전공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노하우와 스킬을

직접 배우고 마감과 완결의 경험이라는 가장 값진 기술을 얻게 됐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순천에서 취업까지 하게 돼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진행한 기업 대표가 높이 평가할 정도로 이번 아카데미에 인재가 많았다"며 "젊은이들의 창의성이

여수, 섬박람회 임시주차장 부지 확보

부영주택 택지 3만여㎡ 협조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돌산 주행사장 인근(부영주택 택지 3만3057㎡(1만평))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전역에서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문지구 아파트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부영주택은 여수 6·7·9·10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외벽 도색 등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주차장 부지는(부영주택에서 평

탄 작업을 진행했으며, 5월 초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가 주차선과 보안등 설치 등 시설 조성을 완료한 뒤 7월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예정이다.

여수=송민국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암, 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민생 안정 노력

영암군은 지난해 하반기 전남도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3·4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재정 운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영암군은 목표액 9714억원 가운데

83.54%인 8116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총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자금 조기 집행에 집중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완도 '행복 충전소 주차타워' 개방

주민 쉼터 등 복합공간 조성

완도군은 완도읍 노두리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행복 충전소 주차타워'를 최근 개방했다.

'행복 충전소 주차타워(군내리1161 외 필지)'는 현대·진아리채·미르채·동아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했던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74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3월 착공해 지상 3층, 연면적 3880㎡ 규모에 총 196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

특히 건물 내 '어린이 놀봄 공간'과 '주민 쉼터', '커뮤니티 센터'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서 주차장을 넘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7일까지 개최되는 '2026 Pre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동안 행복 충전소 주차타워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